

광주·전남 28개 학교 '석면 제거'...속도보다 안전 우선돼야

2027년까지 석면없는 학교 목표 음압기 작동 않고 기록장치 조작 불법 철거공사 개선 대책 시급

여름방학을 맞아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2027년까지 석면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안전한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학교석면문제(광주·전라·제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광주 326곳 중 100곳(30.7%)이고 전남은 866곳 중 393곳(45.4%)에 달한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아 오랫동안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돼 왔지만 폐암과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고 석면안전관리법은 2013년부터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석면제거 추진 계획'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 시설 내 석면 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것

이 골짜기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광주·전남에서 석면을 철거할 예정인 학교는 총 28곳(광주 5곳, 전남 23곳)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초등학교 4곳(산월초, 진월초, 광주중흥초, 광주극락초)과 중학교 1곳(대자중)이고, 전남은 초등학교 11곳(광양 가야초, 봉강초, 금전초, 산포초, 목포산정초, 안일초, 소라초, 법성포초, 학산초, 아산초, 춘양초)과 중학교 7곳(동강중, 광양여중, 광양중, 세지중, 율촌중, 벌교여중, 여수중), 고등학교 5곳(영암남주고, 장흥고, 장흥관산고, 광남고, 한빛고)에서 올해 여름방학 내 석면이 철거된다.

하지만 석면 철거 공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이 이뤄지면서 되레 석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석면 철거 현장에서 석면 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압기(압력차를 만들어 오염된 공기나 세균 등의 유출을 막고 장작된 해파필터로 오염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음압기기록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하나마나 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하나마나 한 공사의 사례로, 음압기가 작동되지 않아 비닐이 바깥쪽으로 불어 있는데도 음압기와 음압기기록장치는 제대로 작동한 것처럼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는 석면 텍

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부품 등이 마구잡이로 버려진 점도 문제로 삼았다. 1층에 버려진 천장 부속품 자재에 석면 텍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 초등학교 운동장과 화단 곳곳에서는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는 여전히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목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비닐보양(공사전 분진과 소음 파편 잔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닐로 감싸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공사 전 내부의 집기 등을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닐로 대충 공사를 하고 그나마 설치한 비닐보양도 현안이 찢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안전한 석면 철거를 위해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 ▲부분철거가 아닌 전면철거 ▲향후 5년동안 방학 중 석면 철거 대상 학교와 일정 지정 ▲교육청·학교별 석면안전감시망(모니터링) 지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안전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철거하겠다는 시도는 엉터리 석면철거를 부추기는 것으로 위험하다"며 "석면 철거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어기는 공사업체와 학교·교육청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향사랑 기부제로 E.T야구단 응원합니다"

광주 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동구장애인복지관 'E.T야구단' 소속 선수가 25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G5베이스볼센터에서 배팅 연습을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발달장애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E.T(East Tigers) 야구단'의 꿈을 광주시 동구가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최근 동구장애인복지관 소속 E.T 야구단 연습장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야구단원들을 만나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사업의 주인공이기도 한 E.T 야구단은 지난 2016년 결성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이다. 야구단에는 현재 10~24세 청소년 25명이 소속돼 야구를 통해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E.T야구단의 후원기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동구는 고향사랑 기부사업을 통해 E.T야구단 운영과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E.T야구단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E.T야구단의 꿈을 이어 나갈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

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E.T 야구단 단원들과 함께 티배팅과 캐치볼을 통해 선수단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구는 기금모음이 확대되면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능지원사업 등 폭넓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사업을 통해 뜻을 모아주시는 기부자들과 함께 E.T 야구단의 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의 내일을 위해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그 기금을 모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및 '위기브'를 통한 지정기부, 오프라인은 농협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퇴원한 장기입원자, 집에서 돌봄서비스

남구, '재가 치료 돌봄' 혜택...의료·식사·이동 지원 등

광주시 남구가 장기치료를 받고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으로 돌아와도 치료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장기 입

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와 돌봄을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입원 필요성은 낮고, 퇴원을 원하지만 돌봄 부재로 퇴원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상 입원한 사람 가운데 퇴원 후 주거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다만 퇴원 후 건강 약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큰 수급자는 제

외된다.

남구는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필수급여 사항인 의료 및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이외에도 선택급여로 주거개선과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는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최근 협력 기관인 한마음 한방병원과 다사랑의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서구 재가센터, 오색빛협동조합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의료급여 관리자 및 협력 의료기관의 케어 팀은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종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해 통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꽃 '홍도원추리' 개화

붉은 섬 '홍도' (紅島)가 노랗게 물들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홍도의 자생종인 '홍도원추리' (Hemerocallis hongdoensis)가 이달 초 개화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홍도는 목포에서 약 130km 떨어진 섬으로, 석양 무렵 섬 전체가 붉은 색으로 물든다고 하여 홍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해상 탐방으로 만날 수 있는 독립문배위 등 홍도 10경을 비롯해 여름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원추리와 겨울철 소복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백 등 야생화와 계절 꽃의 천국이다.

홍도원추리는 학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홍도에서 발견된 자생종으로, 꽃이 크고 탐스러워 육지 원추리와는 다른 매력을 뽐내는 다도해의 대표 여름꽃으로 꼽힌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홍도를 방문하면 홍도원추리가 산기슭과 바위틈 사이를 노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국립공원측의 설명이다.

이동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행정과장은 "홍도를 찾는 탐방객들이 우리 공원의 여름을 불편함 없이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8월7일 장애인 위해 특별개장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더운 여름 피서를 즐기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다음달 7일 하루동안 특별개장을 한다.

광주시는 푸른도시사업소 주관으로 8월 7일 하루동안(오전 10시~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장애인을 위해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개장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휴일 중 하루를 개방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특별개장은 지난 2019

년까지 운영됐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참여 인원은 인솔자 및 보호자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200여명이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물놀이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는 운영 인력 3명과 안전 요원 10명, 환경 정비 인력 2명이 배치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특별개장 홍보와 운영보조를 맡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